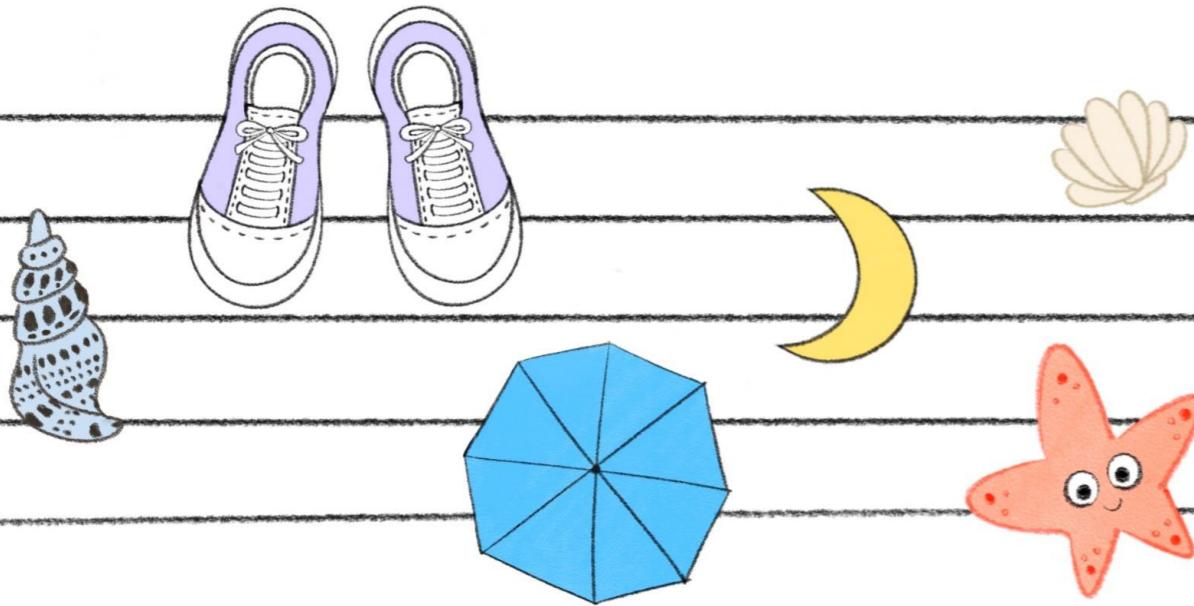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음표



귀를 기울이면 새로이
세상이 낸 소리
우리들의 멜로디

정영아 글·그림

정영아

작사가.

2013년도에 데뷔해 지금까지 약 120여 곡의 노래에 가사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 세상의 모든 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도 혼자가 아닌 거죠.
삶은 다만 어딘가에 더 가까운가에 대한 음악이 아닐까 하는
작은 문득에서 시작된 그림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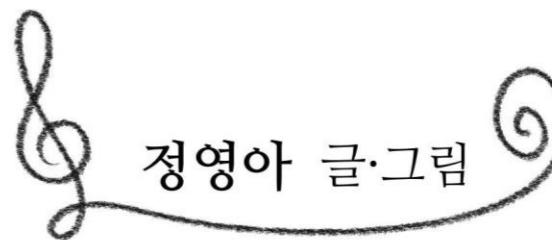
세상의 모든 음표

글·그림 정영아
발행일 2022.12.01.
인스타그램 @beinginsongs

© 정영아 2022

이 책의 그림과 글을 일부 사용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관악문화재단 글빛정보도서관의 <1관 1단>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에는 나눔손글씨 느릿느릿체와 나눔명조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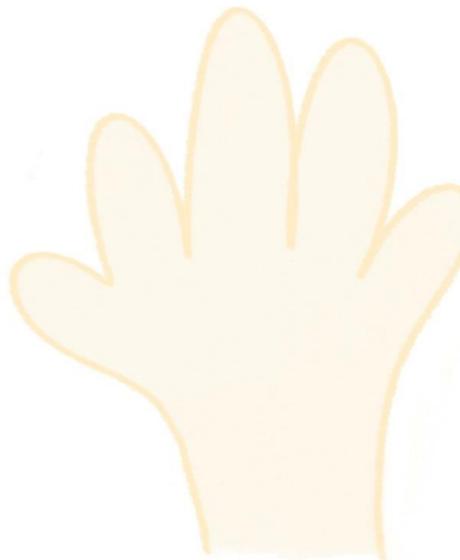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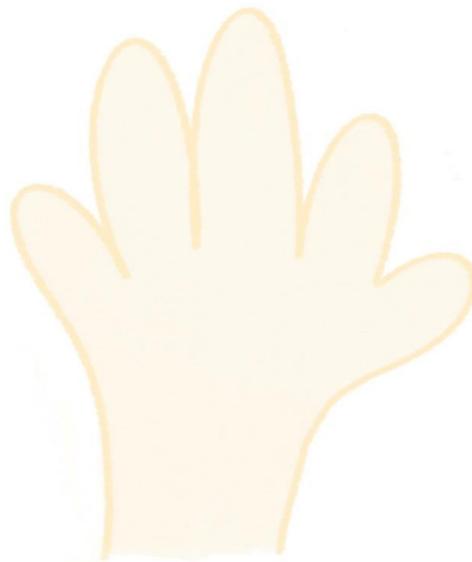
노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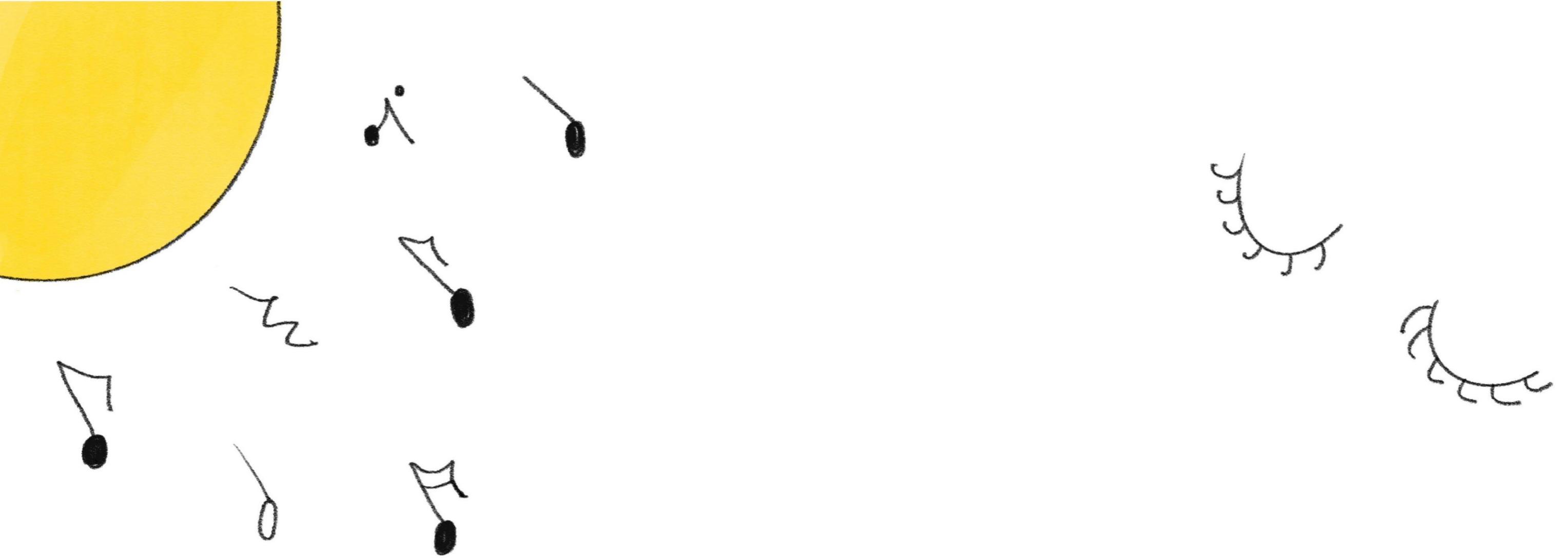
하는

중

음표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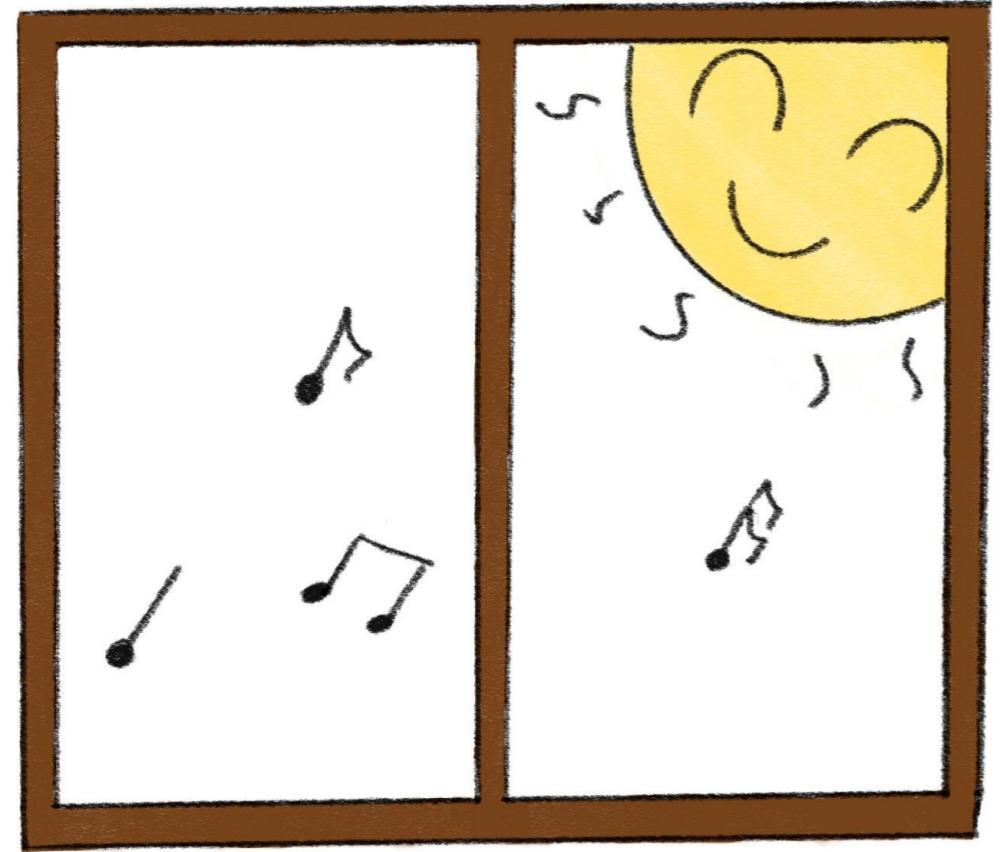
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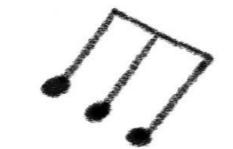


아침이면
밤새 날아온 햇살이
속눈썹을 오선지 삼아

한 올 한 올
다정한
기상 노래를 불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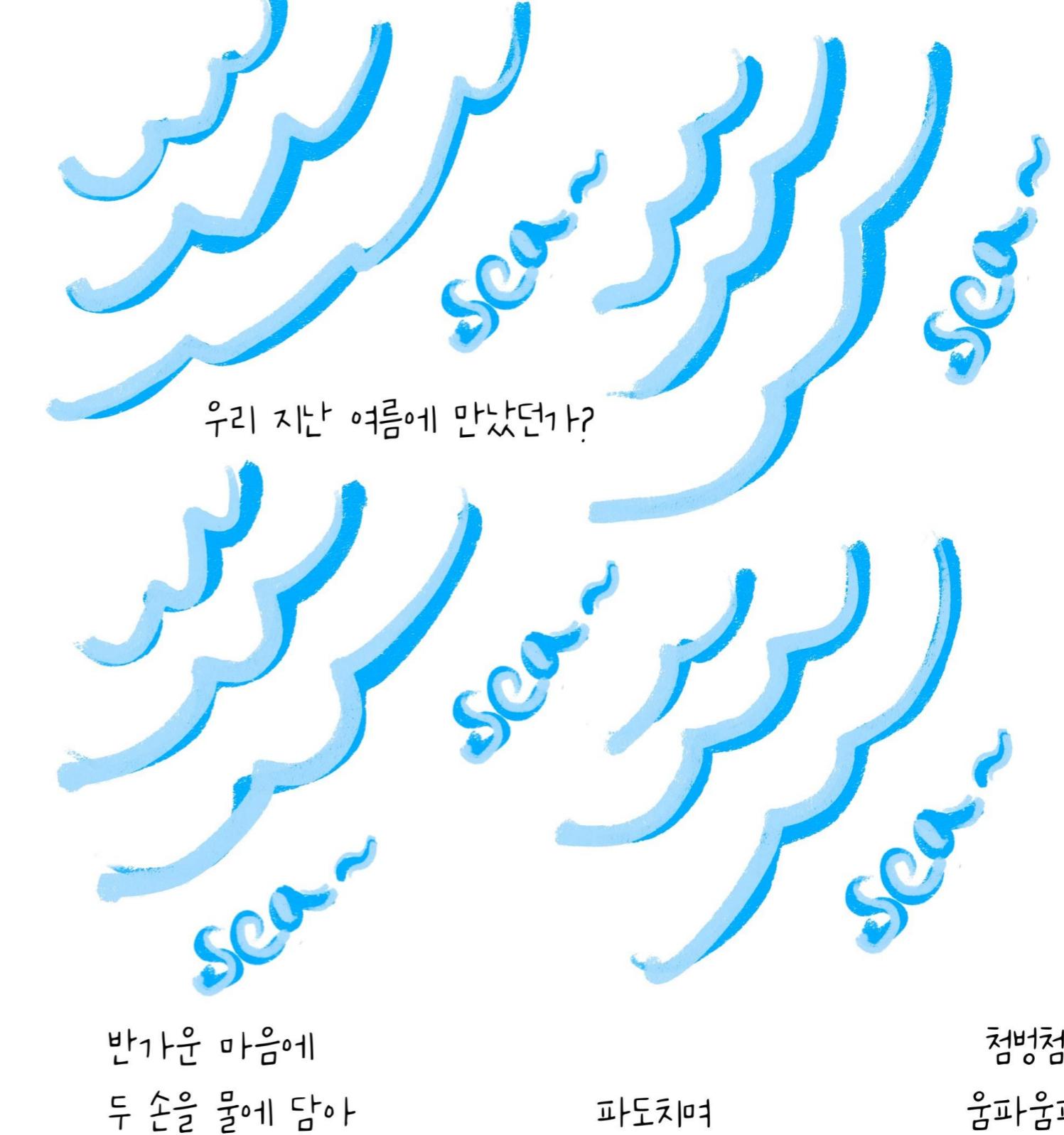
들리나요?



():



세수를 하려고 물을 틀면
세면대 위로
Sea---
바다를 기억하는 물이
안녕
인사를 해요.



반가운 마음에
두 손을 물에 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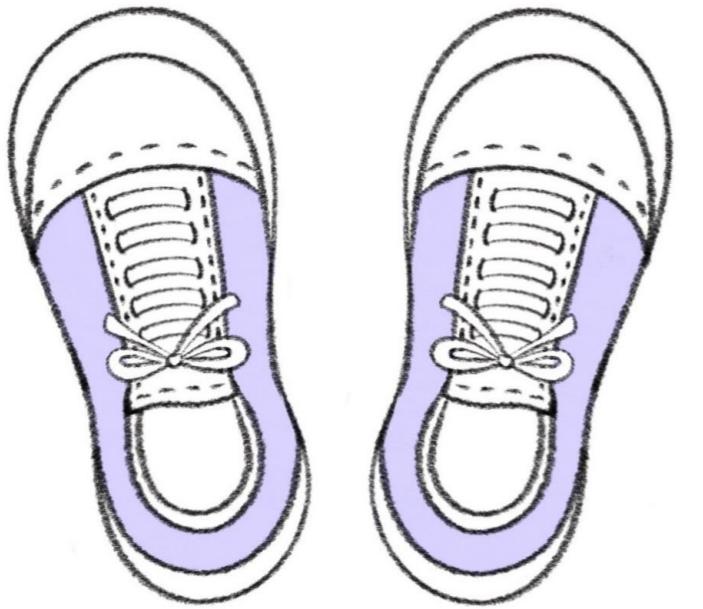
파도치며

첨벙첨벙
웅파웅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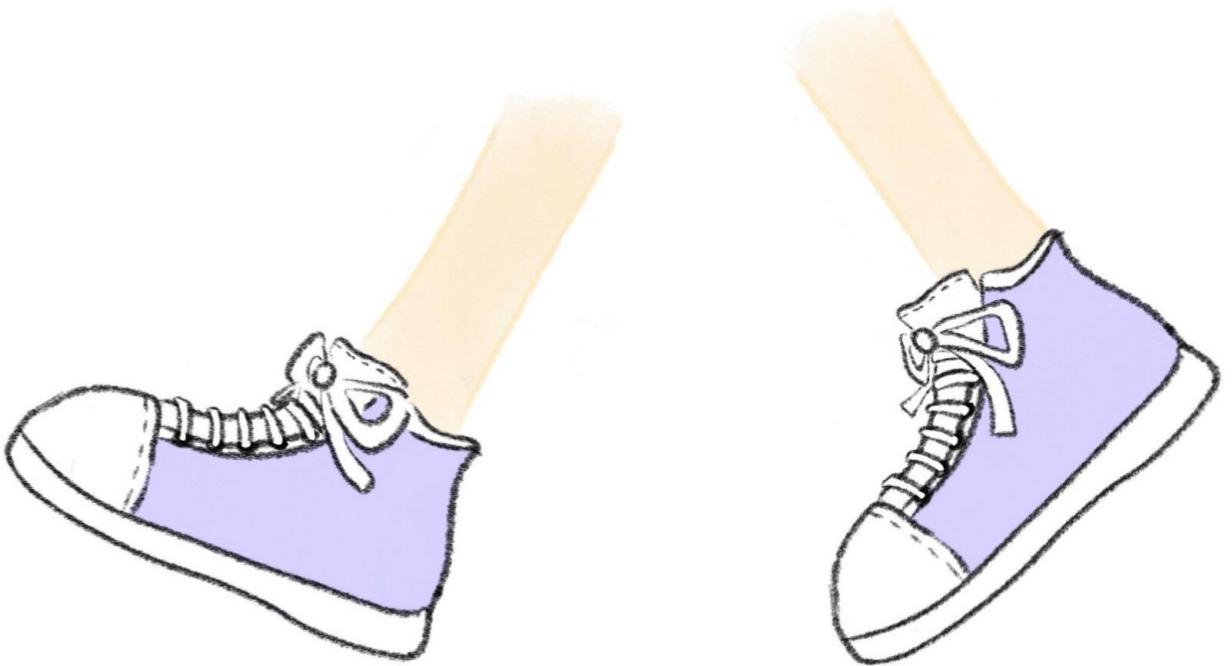
우리 지난 여름에 만났던가?



들리나요?



신발을 신고 걸으면
발걸음마다 땅과 발의



하이파이브

한 발

두脚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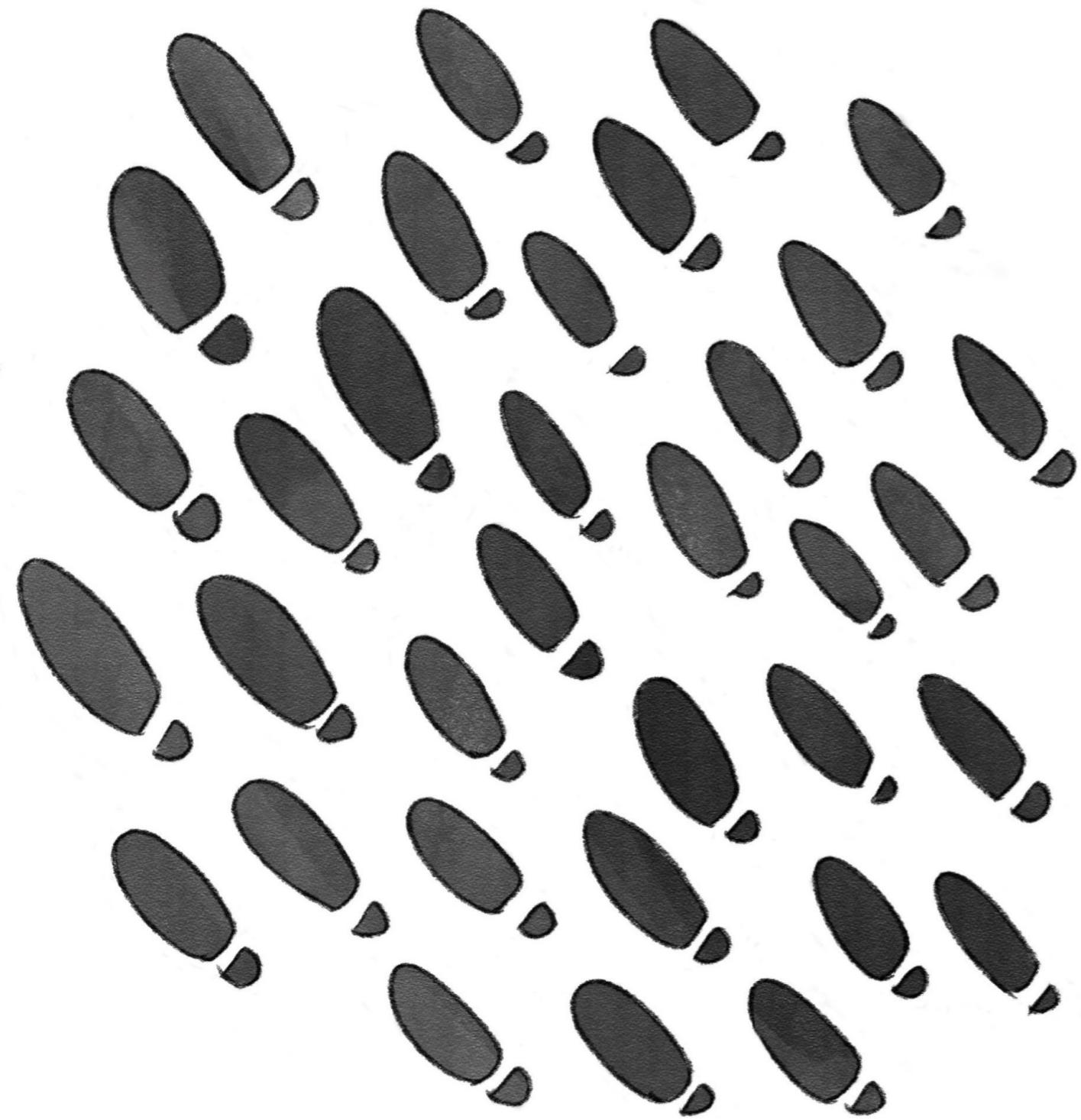
파이팅

우리들의 응원가

하이파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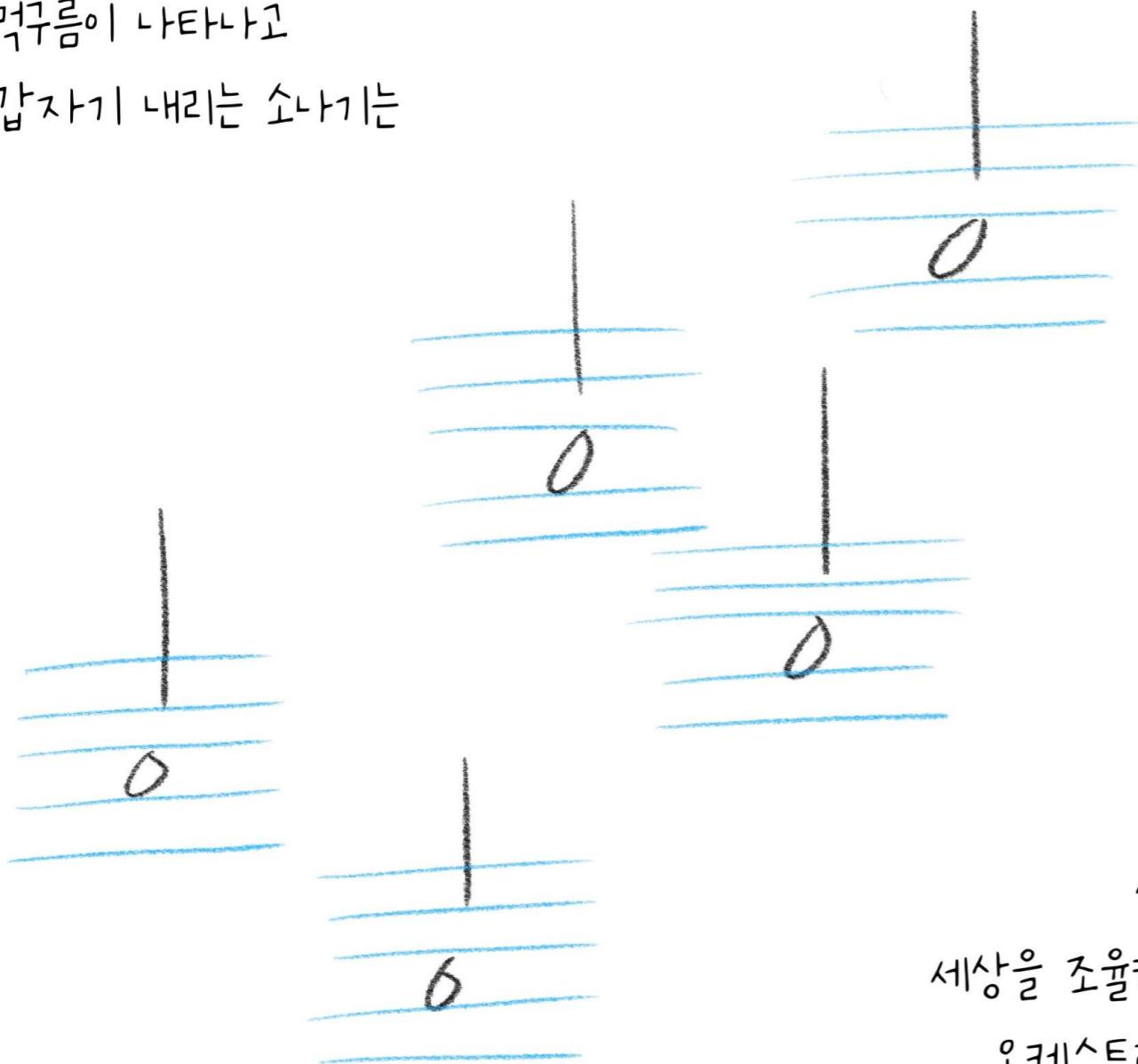
한 발

파이팅



들리나요?

한가롭던 하늘에
먹구름이 나타나고
갑자기 내리는 소나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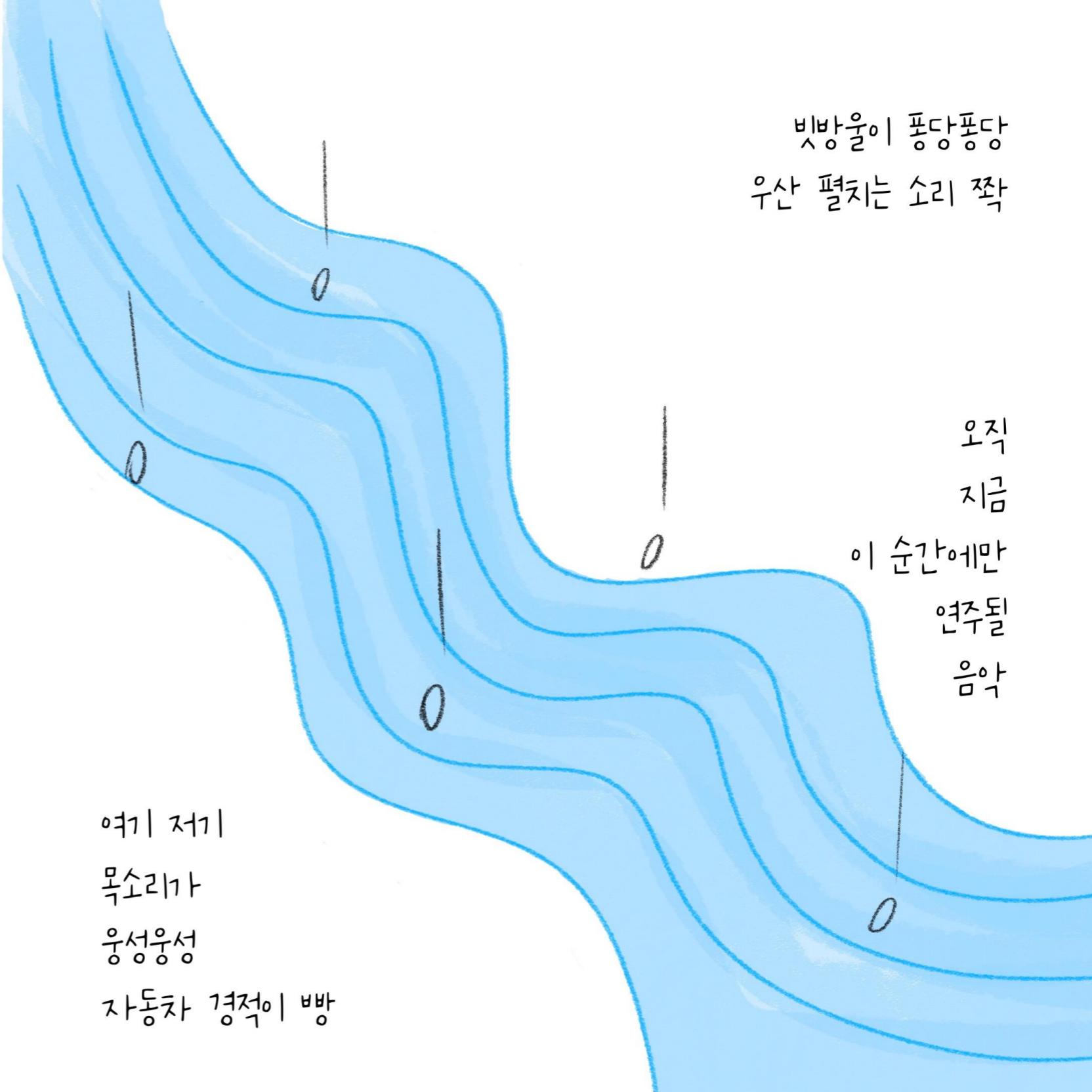
쏴-
세상을 조율하며
오케스트라의
시작을 알려요.

여기 저기
목소리나
웅성웅성
자동차 경적이 빵

빗방울이 풍당풍당
우산 펼치는 소리 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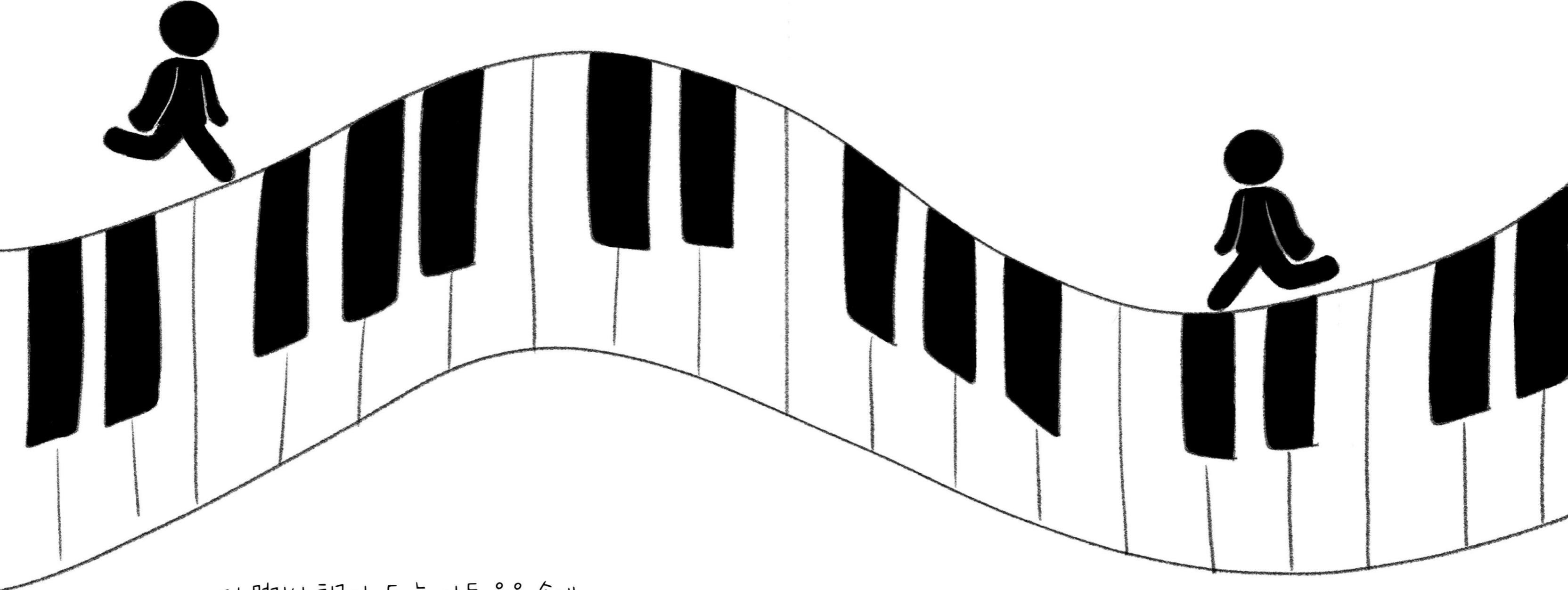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연주될
음악



들리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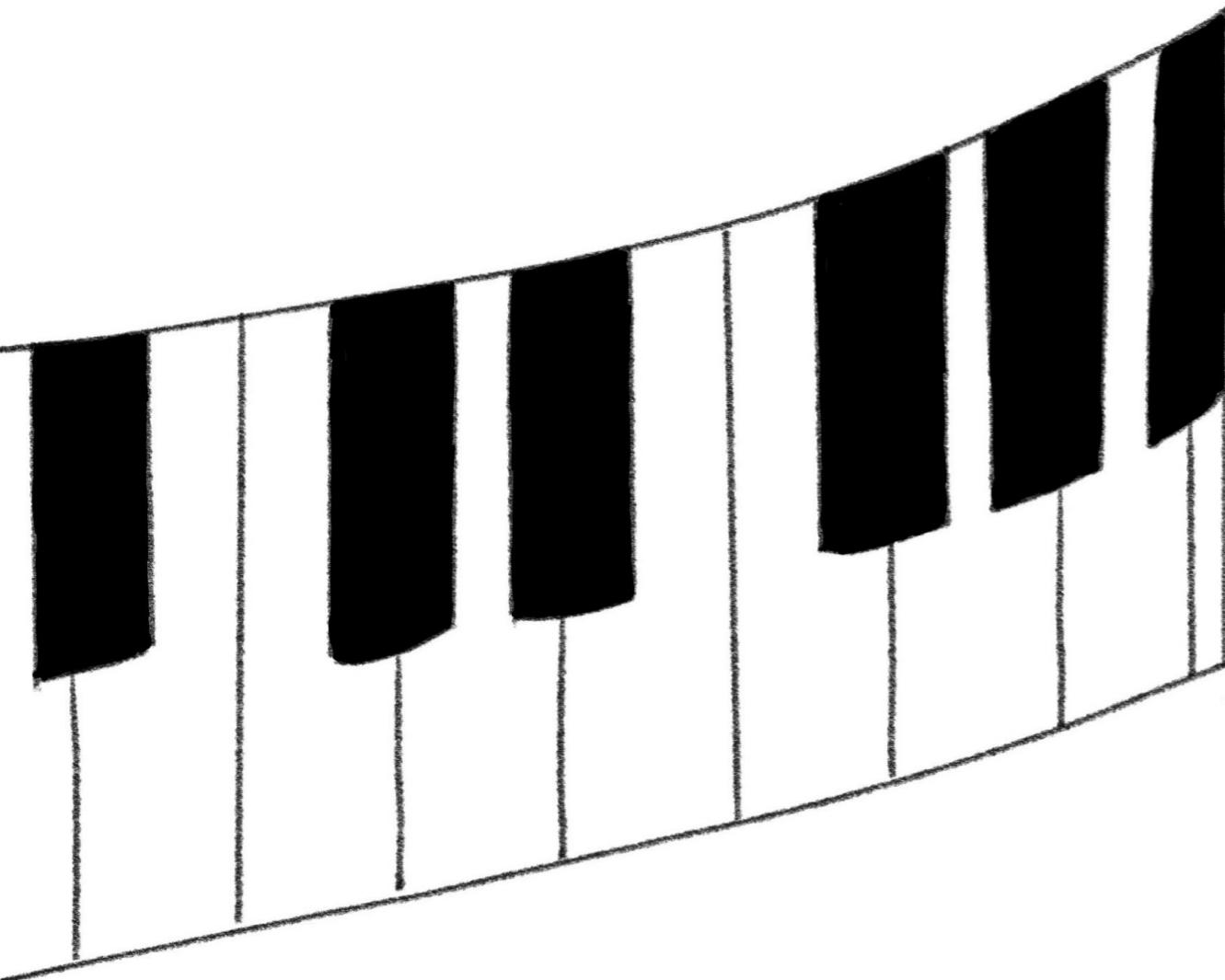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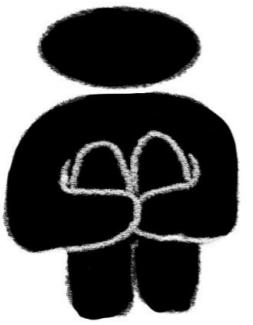
저 멀리서 친구가 두 눈 가득 웃음 속에

나를 담으며 내 이름을 불러요.

그 순간 온 세상은 그 멜로디를 담기 위한 반주를 시작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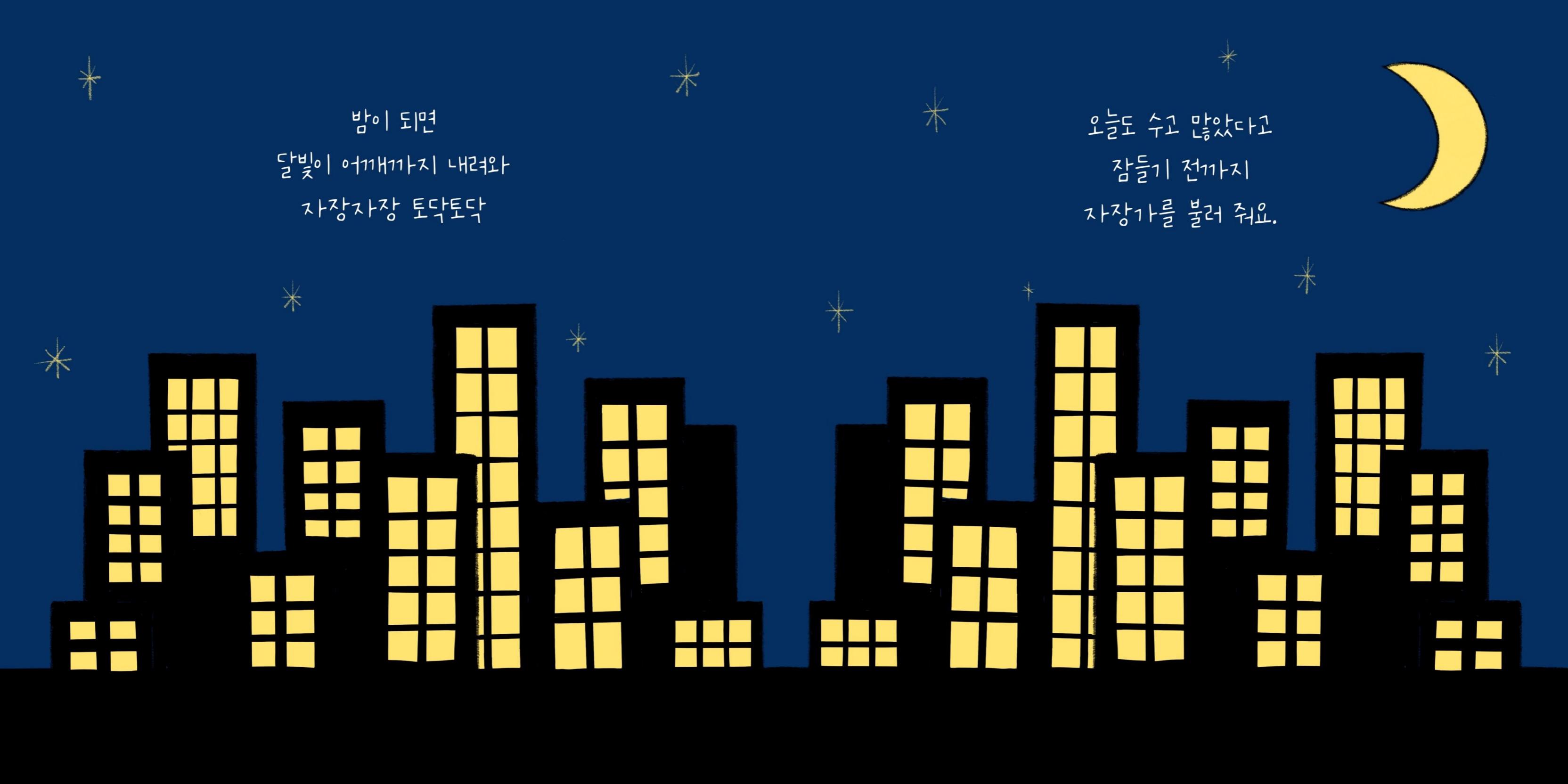
드러나요?



가끔 몸을 웅크려 무릎을 접고
두 팔로 나를 안는 동안은
음악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은 얼마나 빠를지 얼마나 느릴지
어떤 음을 내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들어주세요.



밤이 되면
달빛이 어깨까지 내려와
자장자장 토닥토닥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잠들기 전까지
자장가를 불러 줘요.



들리나요?

모두 나를 부르는 노래예요.

나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귀를 기울이면,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들리나요?

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